

지역 소식통

부안군,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

부안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 상가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사용료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감면할 계획이며, 부안상설시장과 활포상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2023년 총 5,600만원 부과액에서 50%를 감면하여 연간 2,800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세일양행

양궁타겟 해외수출 재개

부안에 위치한 양궁타겟 전문제조기업(유)세일양행(대표 김영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됐던 양궁타겟 해외 수출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세일양행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경기가 취소·축소되면서 양궁타겟 수출이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양궁타겟 시장도 활기를 찾으면서 최근 말레이시아에 5만 달러 규모 수출이 이뤄졌다.

세일양행은 25여년 동안 양궁타겟을 전문적으로 생해 내수와 수출을 하는 양궁타겟 전문제조기업이며 그린타겟과 이동반침대를 개발하는 등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폼타겟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양궁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기운영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등 양궁경기장 시설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새해 첫날 민생현장 앞으로

이학수 정읍시장, 시내버스 차고지 등 시민 밀집 생활 시설 찾아 근무자 노고 치하·격려

이학수 시장이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새해 첫날 수행원 없이 홀로 대한여객 시내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새벽 첫차를 준비하는 운수종사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안전 운행 당부와 함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 정읍소방서를 방문해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소방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 새벽에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환경관리원 대기실을 방문해 근로자들



과 새해 덕담을 주고 받으며 현장 소 통행정을 펼쳤다. 이 시장은 도매시장을 둘러보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환경 행정에 최접점에서 임하는 환경관리원 대기실을 찾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환경관리원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정읍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새해에는 시민 행복과 민생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온·오프라인 통큰 기탁 이어지며 '돌풍'

허승원 행안부 차지분권과장·상하면 출신 박인수씨 등 새해 첫날 의미있는 일 동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가 온·오프라인에서 톨큰 기탁으로 이어지며 초반 인기몰이에 나섰다. 지난 1일 아침 행정안전부 허승원 차지분권과장이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인증했다. 허승원 과장은 "공직 선배인 심덕섭 고창군수와의 인연으로 고창을 알게 됐다"며 "새해 첫날 의미있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고창군에 고향사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고창군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박인수(60)씨도 고향사랑기부제에 톨 크게 참여했다. 경기도 사천시 박인수씨가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노형수 고창군부군수, 심원면 표영현 부면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기부금은 고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의 육성·보호 등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상하면 풍촌마을 출신인 박인수씨는

지난 2017년부터 선봉기를 40대나 기증하고 6000만원 상당의 조명기와 전구를 기부하는 등 늘 고향에 관심 갖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 내장산 리조트 내 엘리스테이, 세계건축상 수상

정읍시 내장산 리조트 내 건축물인 '엘리스테이 풀빌라리조트(대표 김기현)'가 세계 건축 커뮤니티(World Architecture Community)에서 주관하는 세계 건축상(World Architecture Community Awards)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레고 형태의 특이한 건축물 모형을 가지며 이색적인 조형미를 뽐내는 '엘리스테이 풀빌라리조트'는 이템 도시 건축사무소의 광희수 건축가가 설계했다. 광희수 건축가는 장동건·고소영 부



부의 신천리 주택을 비롯해 부산시 기장군 소재의 웨이브 온, 충북 청주시 소재 F.SONE 등을 지은 건축가로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과 국무총리

상, 아메리칸 건축상 AAP 골드 프라이즈 등을 수상했다. 광희수 건축가는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는 이유를 빌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며 "이러한 이유가 숙박을 만들어 내는 '단조'라고 생각하며 엘리스테이를 설계했다"고 전했다. 용산호 인근 내장산리조트 골프장 입구에 들어선 엘리스테이 풀빌라리조트는 2021년 9월 준공되어 현재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시민중심, 으뜸정읍 만들 것"

김형우 정읍시 부시장 취임...신뢰받는 시장·현안 추진 등 강조

김형우 정읍시 부시장(前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이 지난 2일 취임했다. 김 부시장은 취임 당일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총합담 참배, 사무식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부시장은 "민선 8기 정읍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읍 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돼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정읍시민, 전 공직자와 함께 시민 중심 으뜸정읍을 만들어 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폭넓

게 소통하고, 더 나은 정책을 펼치겠다는 이학수 시장님의 시장철학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시장을 구현하고, 직원 화합을 꾀하면서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원만하면서 은화한 성품으로 알려진 김 부시장은 신중하면서도 꼼꼼한 행정 처리와 탁월한 업무능력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형우 부시장은 1967년생으로, 입실이 고향이다. KDI국제정책대학원, 전북대학교, 전주고등학교 등을 졸업했고, 지방기술고시 2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전라북도 안전정책관, 임실군 부군수,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산후조리비, 올부터 최대 200만원 지원

3일 고창군에 따르면 1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가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산후조리비 200만원은 전복 최대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산모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200만원은 고창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출산 당시 거주기간(1년) 미충족 시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이 가능하다.앞서 고창군은 군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등 5개 사업(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50만원), 관내 분만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2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기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보육 지원을 강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및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560-8762)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11만원으로 인상

고창군 호국보훈수당이 11만원(기존 9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기억과 존중의 보훈문화확산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호국보훈수당은 호국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 및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애국지사 유족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제공하는 수당이다. 국가에 대한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생계에 도움을 주면서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창군에선 872명이 호국보훈수당의 대상자로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군은 최근 보훈수당 미신청자 찾아주기 사업을 펼쳐 약 80여 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2023년 고창군의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는 9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례개정(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을 진행해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부모(기존 배우자 자녀만 해당)까지 포함해 보훈대상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드높이는 데 호국보훈수당 인상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이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